

제2차 결핵 전문가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월 22일(화) 2시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 팀 관계자 및 학계, 시도결핵관리과 의사 및 대한결핵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핵퇴치 2030 계획 Revision'을 주제로 한 제2차 결핵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본 회의를 통해 올해 결핵퇴치 2030 계획 중 중점 안건 및 관련 협의사항과 향후 결핵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핵연구원 KOICA 국제연수 실시

우리협회 결핵연구원에서는 지난 1월 24일(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관에서 결핵관리 국제연수와 관련한 업무 협의를 갖고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친교행사 및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결핵연구원은 매년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하여 결핵관리 후진국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국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피머니(주) 결핵퇴치 후원금 1천만원 기부



해피머니 최병호 대표이사(좌)와 우리협회 박승욱 행정총괄국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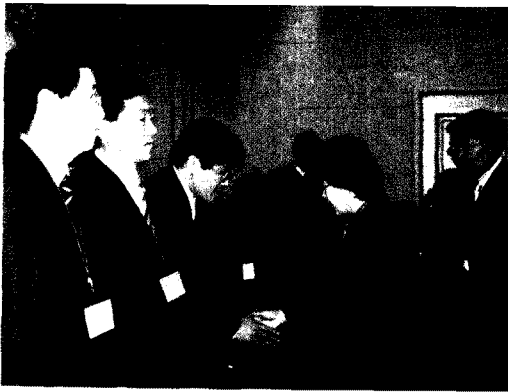
인터넷 문화상품권 및 외식레저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토탈 엔터테인먼트기업 해피머니(주)는 지난 2월 13일(수) 해피머니 본사 회의실에서 우리협회에 기부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우리협회와 해피머니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건강한 사회만들기 캠페인'을 공동 진행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이 기부한 사이버머니와 해피머니 직원들이

자재 모금한 총액 1천만원을 우리협회에 기부한 것. 기부된 금액은 전액 불우 결핵환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08년도 엑스선 검진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1일(목)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지부 영상교육실에서 2008년도 엑스선 검진사업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07년 검진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검진업무 지원 협의 및 DR장비 운용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울산·경남지부, 「전염병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는 경상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2월 15일(금) 창원 드래곤호텔에서 도내 각 시·군 보건소의 결핵 및 전염병관리담당 공무원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08년도 효율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전염병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평가 결과 김해시, 하동군 보건소가 최우수

기관에 거제시, 함안군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결핵관리 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간 병의원에 신고된 환자의 보건소등록률이 저조하고 환자의 추구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 이번 평가대회는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으며 향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핵 및 전염병예방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복십자부인봉사회 기금 지원 환자 선정

우리협회 복십자부인봉사회는 결핵요양시설 후원금의 일부를 시·도지부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 지원에 쓰기로 협의하고 각 지부 병원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난 2월 15일(금) 결핵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지원대상자 3명을 선정하였다. 대상 지부는 서울, 대구경북, 경기지부로 해당 환자에게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료비 총액을 지원한다. †